

# 농업인 정년 늘어나고 농지 임대 기간 확대

### 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진 '농업분야 제도' 시행 안내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 민박 가능

평균 연령, 정년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오는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의 농업인 취급가능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또 농지법 개정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임대가 허용되고, 고정식 온실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된 시설의 경우 농지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 농업부

야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고, 변경된 제도 미이행으로 인해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압류가 금지된 '농지연금급 전용계좌'로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경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유효기간 3년이 경과되면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이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정책자금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 여부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등록 정보와 다른 각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만이 영업신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구제역 백신구입비를 100% 지원했으나 황체 양성을 기준 미만 전염규모 농가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달라진 제도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미인증품 친환경 표시 금지 ▲재사용 화학 표시제 도입 ▲가축시장 개설자 확대 등이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말산업과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며 "농업인들께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수 임포항 어촌뉴딜 300 추진위 해양정화 활동

여수 임포항 어촌뉴딜 300 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분소와 함께 바다 정화에 나서 임포항 주변에 방치돼 있던 스티로폼 1t, 플라스틱 1t 등 해양쓰레기 2t을 수거했다. <사진> 추진위와 여수분소는 지속적으로 청소나서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줄 방침이다.

김경선 임포항 어촌뉴딜 300 추진위원은 "그동안 마을 청소를 하면서도 바닷가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날 행사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순천·광양·보성·화순 4개 시·군 밤나무 재배단지 4234ha 헬기 2대 띄워 친환경 항공방제

전남도는 오는 27일까지 순천, 광양, 보성, 화순 등 4개 시·군 밤나무 재배단지 4234ha에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친환경 항공방제에 나선다.

밤나무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산지에 주로 식재돼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고, 농산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생산능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항공방제는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어 발생될 수 있는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바람이 적게 부는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 약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특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따른 친환경 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해충박사프리미엄, 멸충대장굴 등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전남 밤'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방침이다.

고압 송전선 연결지역을 비롯 방제지역 외곽 2km 이내 양봉·양잠, 친환경 재배지 등은 항공기 안전사고와 약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5ha 미만 소규모 재배지는 지상방제로 추진한다. 한편 방제기간 동안 약제방제 구역에는 등산객 등 입산이 금지되며, 방제 실시 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도 펼친다.

박현식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친환경 항공방제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능력은 일손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더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한민국 동행 세일 in 서울' ...전남 14개 기업 21개 품목 판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 소비 진작을 위한 축제 '2020 대한민국 동행 세일 in 서울(코엑스)' 행사에 '전라남도 홍보관'이 개설돼 운영됐다. <사진>

지난 1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행사는 브랜드K 등 유명소비재 중소기업과 함께한 언택트형 온·오프라인 결합 행사로, 전남에서는 14개 기업 21개 품목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전시·판매됐다.

홍보관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전시제품을 관람한 후 마음에 드는 제품의 QR코드를 찍어 제품별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은 '전라남도 홍보관'을 비롯 '브랜드K 전시관', '가치샵시다 홍보관', 서울시 '중소기업 우수상품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 특관관'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 홍보관에서는 ▲가정용 두부제조기 ▲손소독제, 세정티슈, 천연탈취제 ▲미스트 등 화장품 ▲전기자전거 ▲아이스군고구마 ▲차량용 목쿠션·매트 ▲고흥 사과즙, 석류즙, 유자푸레 ▲진도 미역, 김, 해초세트 등이 전시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농촌관광 시설물 '여름철 안전점검'

전남도는 하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도내 모든 농촌관광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7월 말까지 추진되며, 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69개소를 비롯 관광농원 82개소, 농어촌민박 3천 230개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4개소다.

안전점검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되며, 이번 하절기 점검은 각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접수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전남도는 27만 4명을 점검만으로 편성해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과 함께 시·군 농촌관광 시설을 표본 점검하고, 오는 16일부터 2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내 농촌관광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안전우유 생산 '잔류물질' 검사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우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에 들어갔다.

14일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집유 차량과 농장의 원유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집유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유와 유업체 저유조 보관 원유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계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전담한 상시검사에 국가 차원의 잔류물질 검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우유 속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과 농약, 환경유해물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원유가 우유와 유가공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하고,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지영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재 식육, 식용란 등도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유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준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가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451개 젖소 농가는 하루 406t의 원유를 생산, 전국 우유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지역 월동해충 '먹노린재' 발생 19.8% 증가 벼 농가 적기방제 당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겨울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먹노린재가 도내 21개 시·군 7797ha(벼 재배면적의 5.2%)에서 발생해 지난해보다 19.8%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노린재는 낙엽숙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보낸 뒤 모내기 시기에 논으로 이동해 벼의 잎과 줄기를 해치며, 벼 줄기 속 어린 이삭을 흡즙해 반점미의 피해를 주고 있다.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답 이동 최성기인 7월 상순에 논두렁과 논 가장자리 위주로 약제를 살포하며, 벼 이삭이 논바닥까지 물을 댄 뒤 살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33억원의 방제비를 편성해 중점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차 발생기인 벼 출수가 전후인 8월 상·중순을 벼기 본방제기간으로 잡아 집중방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먹노린재가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먹노린재는 벼 밑부분에서 식해 벼가 성숙해갈수록 방제가 어려워 생육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b>의료시설</b>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